1. 성장률 전망과 경기회복 시점

< '12년 성장률 전망 수정 추이 >

기 관	'11.9월	10월	11월	12월	'12.1월	4월	5월	6월	7월	9월
한은		**4.2**		**3.7**		**3.5**			**3.0**	
IMF	4.4				3.5	3.5		3.25		3.0
OECD			3.8			3.5	3.3			
정부	4.5			3.7				3.3		
KDI			3.8				3.6			2.5
IB 평균	3.9	3.8	3.6	3.4	3.4	3.3	3.3	3.2	2.9	2.6

□ '12년 성장률(한은), 지난해 10월 올해 성장률을 4.2%로 발표한 이래

○ 2차례 수정 전망('11.12월 3.7% - '12.4월 3.5%)을 거쳐,

- 지난 **'12.7.13일 3.0%로 하향 조정**

⇒ **전망 시점이 늦을수록 성장률도 낮아지는 모양세**

□ 하지만 한은의 3.0% 전망 이후에 발표된

○ **KDI** 전망('12.9월)은 한은 보다 **0.5%p 낮은 2.5%**

○ **10개 IB 평균** 전망('12.9월)도 **2.6%**

< GDP 증가율(%) >

구 분	2009년				2010년				2011년				2012년	
	1/4	2/4	3/4	4/4	1/4	2/4	3/4	4/4	1/4	2/4	3/4	4/4	1/4	2/4
전기比	0.1	2.5	3.4	0.2	2.2	1.4	0.7	0.6	1.3	0.8	0.8	0.3	0.9	0.4
전년 동기比	△4.2	△2.1	1.0	6.3	8.7	7.6	4.5	4.9	4.2	3.5	3.6	3.3	2.8	2.4

□ **올해 상반기 2.6% 성장률**을 기록했기 때문에

○ **하반기에 평균 3.4%의 성장률을 기록해야**
연간으로 3.0% 수준을 기록 가능

□ 현재 6분기 연속으로 전년동기대비 성장률이 떨어지는 추세

○ 사실상 하반기 성장률이 상반기(2.6%) 보다 높아지기 어려울 것.

질의) 10.11(목) 금통회 회의때 발표될 수정 경제전망에
이런 흐름들이 반영돼서 지난 7.13일 3.0% 보다
낮게 발표될 예상이 우세, 어떻습니까?

< '13년 성장률 전망 수정 추이 >

기 관	'11.12월	'12.4월	5월	6월	7월	9월
한은	**4.2**	**4.2**			**3.8**	
IMF		4.0				3.9
OECD	4.3 ('11.11월)	4.3	4.0			
정부				4.3		
KDI			4.1			3.4
IB 평균	4.3	4.1	4.1	3.9	3.7	3.3

□ **내년도 전망도 발표 시점이 늦을수록 낮게 전망**

○ 한은, 지난해 12월, 올해 4월 2차례 4.2% 성장을 전망했지만

- **올해 7.13일 3.8%로 낮춰** 잡았음.

○ 이후 9월 전망도 기관들의 당초 전망보다 낮게 발표

- **KDI**, 4.1%('12.5월) → **3.4%**('12.9월)
- **IB 평균**, 4.3('11.12월) → **3.3%**('12.9월)
- **IMF**, 4.0%('12.4월) → **3.9%**('12.9월) / ※한은보다 ↑

□ 업무현황(p.7)에서 실물경제 총평으로

○ **"성장 모멘텀 약화"**, "유로지역 국가채무위기 장기화, 신흥시장국의 경기 둔화 등 **하방리스크가 우세**" 평가

질의) 내년도 전망도 당초(7.13) 전망보다
낮아질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까?

□ 남은건, 이러한 저성장이 얼마나 이어지고

○ 언제 회복될 것인가 하는 문제

□ **'12.7.12, 한은(금통위) 기준금리 전격 인하**(3.25→3.0%)

※ '09.2.12 이후 3년 5개월만

- 통화정책방향을 통해 **GDP갭* 상당기간 마이너스 지속** 의견 표명

* 잠재GDP(물가상승률을 자극하지 않으면서 달성 가능한 최대 생산능력)와 실질GDP의 격차

□ **잠재성장률도 늦게 발표될수록 낮아지는 추세**

○ **한국은행**('00~06년/'08.1월) **4.8%**

○ **KDI**('11~'20/'10.6월) **4.1%**

○ **OECD**('12~'17년/'12.5월) **3.4%**

○ **국회예산정책처**('12~'16년/'12.9월) **3.7%**

⇒ 한은의 GDP갭의 마이너스 지속 발표는
당분간 3% 초반대의 성장률을 예고하는 것으로 해석

질의) 한은은 잠재성장률을 어느 정도 수준으로 보고 있습니까?

GDP 갭이 플러스로 돌아서는
경기회복 시점을 언제로 보고 계십니까?

2. 기준금리 방향

□ 업무현황 p.14에서 밝히신것과 같이

○ 통화정책방향의 2가지 목적은 **성장세 지속과 물가안정 기조** 유지

□ 현재와 같은 저성장 기조가 나타나고

○ 상당기간 지속될 것이 전망되면 **금리인하 압력이 높아짐**

⇒ **'12.7.12, 3년 5개월만에 기준금리를 전격 인하(3.25→3.0%)**

□ 7.12일 기준금리 인하 이후

○ 정부는 **지난 6.28일 8.5조원 규모**의 1차 재정보강대책에 이어

○ '12.9.10일, **5.9조원 규모의 제2차 추가재정지원 대책** 발표
(**총 14조 4000억원 규모** 경기부양책)

- 10.5(금), 박재완 장관, **"사실상 예년의 추경에 상당하는 규모"**라고 평가하며 정부의 경기부양 의지를 재확인

⇒ 시장의 관심은 이틀 후에 있을 한은 금통위에 모아져 있음

□ **미·일·유럽 중앙은행이 9월 들어 양적완화**를 실행했다는 점도 한은의 금리 인하 기대를 높이는 부분

○ **미국: 연준 QE 3**(quantitative easing·양적완화) **발표**

* 고용시장이 안정될 때까지 매월 400억불 규모의 모기지증권 매입

○ **유럽: ECB 무제한 국채매입*,**

* 무제한 국채직매입 프로그램(OMT, Outright Monetary Transaction)
= 역내 국채금리 안정을 위해 잔존 만기 3년 이내 단기채권을 무제한 매입

○ **일본: 양적 완화**(자산매입기금 확대: 70 → 80조엔)

□ 하지만, **가계부채가 금리결정의 최대 걸림돌** 역할

○ 2011년 3/4분기 이후 **3분기 연속 가계부채 증가율 감소**

- 반면, **규모면에서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**하고 있어

⇒ **금리를 낮춰 경제회복도 지원**하고,
가계의 원리금 상환부담도 덜어줄 수 있겠지만, 어려운 결정

가계부채 추이[1)]

(단위: 조원)

연 도	2010	2011				2012	
		1/4	2/4	3/4	4/4	1/4	2/4
가계부채 (증가율, %)	843.2 (8.7)	851.7 (8.7)	873.3 (9.1)	887.6 (8.8)	911.9 (8.1)	911.1 (7.0)	922.0 (5.6)
실질성장률 (전년동기비, %)	6.3	4.2	3.5	3.6	3.3	2.8	2.3

주: 1) 가계신용 기말잔액 기준, ( )내는 전년동기말대비 증가율(%)
자료: 한국은행

질의) 지난 7.,13일 금리인하 / 이후 3개월 경과
가계부채가 얼마나 늘어났고,
가계의 원리금 상환 부담은 얼마나 감소했습니까?

□ 한국은행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

○ **가계부채는 금리 못지 않게 성장률, 부동산 가격에 크게 영향**

□ 2005년 1/4분기~2012년 2/4분기중

○ **가계부채 증가율과 실질성장률(전년동기)간 상관계수가 0.51**

※ 실질성장률의 2배 수준에서 가계대출 증가율이 형성

※ 현재 한은 전망으로 올해 성장률은 지난해보다 △0.8%p↓

○ **가계부채 증가율과 주택매매가격 상승률(전년동기)간 상관계수는 0.69**

※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면 가계부채 증가율도 비슷하게 높아짐

※ 주택가격 고점대비 변동(%): (서울)△2.2/고점:'10.3 (수도권)△3.0/고점:'08.9

□ 한국은행 분석으로도 금리를 올려도

○ GDP갭 마이너스가 지속돼고, 주택매매가격 상승률이 마이너스이므로

⇒ **가계부채에 대한 영향을 제한적으로 판단.**

□ 업무현황(p.8)에서

○ "**소비자물가 상승률**이 **상반기 2.7%, 하반기 들어서는 1% 초중반**을 유지하면서 당분간 **물가안정목표치를 하회**할 것"으로 판단

⇒ **금리를 인하해도 물가를 자극하지는 않을 것으로 해석**

질의) **금리를 낮춰 경기회복을 지원할 때**가 됐다고 보는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?

3. 예산 심의 의사록 공개, 기념화폐 판매처 확대, 도청소재지별 1본부 원칙 준수

□ 18대 4차례 국정감사 시정요구 48건중 39건 조치완료

○ 조치미흡 **9건중, 건수로는 6건 내용으로 3건이 본 의원의 지적**

< 한국은행 국정감사 시정요구('08~'11) 조치결과 >

구 분	시정요구	조치결과		
		조치완료	조치미흡	
			건수	내 용(경과)
계	48	39	9	-
'08	8	8	0	-
'09	8	7	1	**·금통위 예산 심의 의사록 공개**
'10	14	12	3	·물가안정 노력 강화 (※소비자물가, 물가안정 목표(3.0%±1%) 상회) **·금통위 예산 심의 의사록 공개** **·경제·행정여건을 반영한 지역본부 개편**
'11	17	12	5	**·금통위 예산 심의 의사록 공개** **·경제·행정여건을 반영한 지역본부 개편** **·기념화폐 판매처 확대** ·금통위 위원 추천제도 재검토 ·정부의 금통위 열석발언권 규정 마련

(한국은행 예산 심의 의사록 공개)

	한국은행	개선방안(질의)
통화정책의 중립성	○내부 경영에 대한 사항을 공개는, - 불필요한 간여	○한국은행처럼 엄격한 중립성과 독립성이 요구되는, - **법원, 검찰, 경찰의 예·결산은 국회에서 심의·확정** ○한국은행법(제5조)에서 규정하고 있는 **투명한 경영 원칙에 위배**
법령위반	○한은법 제24조와 금통위 회의운영규정 제12조에서 - 통화신용정책사항만 공개 규정	○한국은행법 제24조(의결서의 작성 등)에서 금통위 의사록의 공개를 규정하고 있고, - 금통위 회의규정 제12조(의사록의 공개)에서 **금융시장의 안정이나 신용질서의 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의사록 비공개** 규정 ⇒ 한은의 예산 심의 결과를 공개한다고 해서 금융시장의 안정이나 신용질서의 유지에 영향을 끼친다고 볼 수 없음

※ 수석전문위원도 「'11년 국감 시정요구사항 조치결과 분석」(p.23)에서 조치미흡 지적

<참고> 의사록·의결서 작성 관련 근거법령

[한국은행법] 제5조(한국은행의 공공성 · 투명성) 한국은행은 그 업무수행과 **기관운영에 있어 공공성과 투명성을 확보**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제24조(의결서의 작성 등) ②금융통화위원회는 의사록을 작성하고, **금통위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공개**하여야 한다.

[금통위 회의규정] 제12조(의사록의 공개) ①의장은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작성한 의사록의 내용중 **통화신용정책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회의일로부터 6주가 경과한 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화요일**에 한국은행 **인터넷 홈페이지에 이를 게시하여 공개**하여야 한다.

②의장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**금융시장의 안정이나 신용질서의 유지 등을 위하여**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과 협의하여 당해 **의사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개하지 않거나** 공개의 시기 및 방법을 달리 정할 수 있다.

질의) 현행 법령의 의사록 공개 규정을 준수해
예·결산 심의 의사록도 공개 필요, 견해는?

(경제·행정여건을 반영한 지역본부 개편)

○ 현재 한국은행의 지역본부 설치기준*인

- **광역시 · 도별로 1곳 원칙***과

* 보충기준: 지역경제규모·수요·지리적특수성 등을 감안(강남, 강릉, 포항, 목포)

- **도청이전 등 행정여건이 변화하는 것에 맞춰 한국은행의 지역본부도 개편**돼야 한다고 2년 연속 질의

【16개 본부】부산 · 대구경북 · **목포** · 광주전남 · 전북 · 대전충남 · 충북 · 강원 · 인천 · 제주 · 경기 · 경남 · **강릉** · 울산 · **포항** · **강남**

□ 우선, **안동시와 지역경제협력에 대한 MOU를 체결**('12.3.9)하고, 현재 **'지역담당제(3명)'*** **시행**중 / 감사

* 지역본부 관할지역내 특정 지역을 전담하는 직원을 지정하고 동 직원이 해당 지역에 대한 조사연구, 모니터링, 회의참석, 건의사항 수렴 등을 전담

< 안동시-대구경북본부 지역담당제 운영실적 >

정기조사연구	- 안동지역 예금은행 여수신 동향(매월) - 안동지역 어음부도율 동향(매월)
특별조사연구	- 안동지역 농산물 유통구조 발전방안(7.6) - 경북지역 농업 현황과 발전전략(7.9)
세미나 개최	- 2012 안동 지역발전 세미나(6.26) (FTA시대 경북농업의 비전과 발전전략)

□ 지금까지 **대구경북본부가 대구에 통합·운영**되고 있는 것은

○ **대구(시청)·경북(도청)의 행정청 소재지가 동일지역(대구)**에 있어 왔기 때문

질의) 2014년 6월 경북도청이 대구에서 안동으로 이전하고, **200여개 경북도 산하 공공기관·민간기업 경북 본부의 안동 이전이 예상**되는 만큼,

다시 한번 시정요구를 드릴테니 **대구경북본부를 분리해 경북본부를 안동으로 이전**해주십사하는 당부

(기념주화 판매처 확대)

□ 현재, **기념주화가 본부별 화폐박물관을 통해서만 판매**

○ 최소한 **세계유산 기념주화는 해당 유산 인근에서는 판매될 수 있도록 요청드렸더니**

⇒ **'지자체 등의 홍보용 기념주화 수요를 파악하여 별도 지원' 답변**

질의) **지자체에 물량도 배정**하고 해당 세계유산 인근의 **공공기관(지자체, 관광공사 등)이 운영하는 관광안내소에서는 판매**될 수 있도록 당부, 견해는?